

국민연금 “한미약품 박재현·신동국 회장 해임 반대”

경영권 분쟁 상태의 한미약품에서 대표 이사 등의 해임안 의결을 임시 주주총회에 열린다.

15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19일 10시 서울 송파구 잠실 서울시교통회관에서 열리는 한미약품 주총에선 지주회사 한미사이언스가 제안한 박재현 사내이사 해임 건·신동국 기타비상무이사 해임 건·박준석 사내이사 선임 건·장영길 사내이사 선임 건이 상정돼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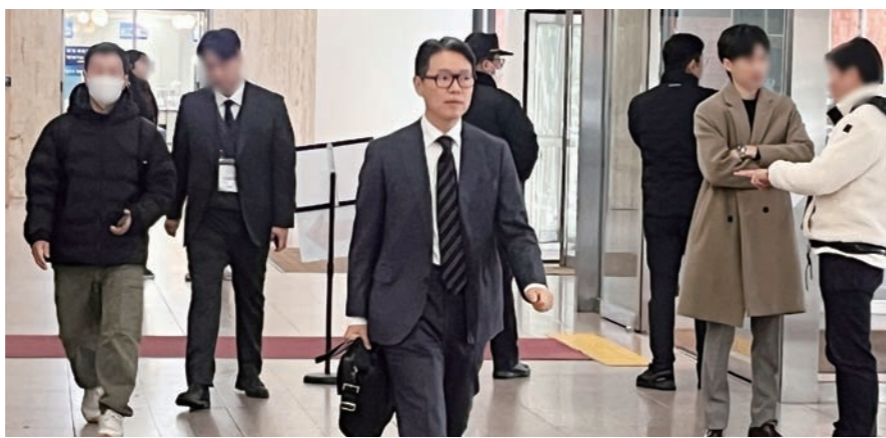
4자연합(신동국 회장·송영숙 회장·임주현 부회장·김림현 유한회사) 측의 인사로서 형제(임종훈 한미약품 사내이사·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에겐 눈엣가시가 돼 버린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와 4자연합 중 1명인 신동국 회장의 해임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박재현 대표의 경우 배임·횡령 자문자문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다수 고소·발의까지 이뤄진 상태다.

이번 해임 안건은 특별 결의 안건으로 출석한 주주 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국민연금이 모든 안건에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가결 가능성은 불투명해졌다. 국민연금의 결정은 국내외 자문사들의 ‘반대 권고’를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미약품 의결권은 한미사이언스

19일 임시주총 표 대결에 입장 정리… 가결 힘들 듯
남은 소액주주 표심 어디로 향할지가 최대 관심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가 11월 28일 서울 송파구 잠실동 교통회관에서 열린 한미약품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 임시 주주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가 주주명부 폐쇄일 기준 41.98%를 가장 많다. 국민연금은 10.23%를 가진 2대주주다. 신동국 회장은 7.72%를 갖고 있고 소액주주 의결권은 6월 말 기준 39.14%다.

이에 따라 남은 소액주주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가 중요하다. 기관투자자를 포함한 소액주주의 의결권은 6월말 기준 39.14%다. 이 중 국내외의 기관투자자들은 24.9%를 보유하고 있다.

한편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기 위한 4자연합의 가처

분 신청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의결권 행사에 제약이 생길 수 있지만 업계는 해당 가처분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반면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양쪽이 5대 5 동수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어 답을 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주총 전날까지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그동안 고소·발로 강경 대응을 이어 온 임종훈 이사는 국민연금의 의결권 방향 발표 후 보도자료를 내고 “대주주들의 책

임있는 논의”를 제안했다.

임 이사는 “19일 예정된 임시주총 철회를 공식 제안한다”며 “경영권 분쟁의 장기화를 방지하고 회사의 미래를 위해 대주주를 포함한 모든 주주와의 책임 있는 논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임 이사는 “경영권 분쟁이 지속되면 주주 신뢰는 물론 회사의 안정적 발전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것”이며 “지금은 계열사 이사진과 모든 주주들이 협력해 그룹의 발전 방향과 주주 가치를 보호할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계열사와 법인의 경영권 구조를 정리하고 지주사 중심으로 2025년 사업운영 계획을 조정해 그룹 운영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임종훈 대표는 “임종훈 이사의 제안에 대해 미리 알고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다”고 말했다.

한미약품은 “현재 시점에서 임시 주총 취소를 검토하거나 반복하기에는 물리적·시간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의 반대 입장과 소액주주의 표심 범위의 가처분 결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약품의 경영권 분쟁이 회사 운명과 주주 가치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허승아 기자 heosa@skyedaily.com

韓전기차 하락세 속 테슬라 날았다

11월까지 2만8498대 판매
현대차 제치고 전체 2위

2024년 11월까지 신규 등록된 전기 승용차 순위에서 테슬라가 2만8498대로 2위를 기록했다.

15일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가 조사 결과에 따르면 테슬라는 현대차동차를 35대 차이로 제치고 2위에 올랐다. 1위 기아(3만4384대)와는 약 6000대 차이다. KT모빌리티는 6016대가 등록돼 4위였고 BMW(5974대)와 메르세데스 벤츠(4409대)가 각각 5·6위였다. 다음이 아우디(3313대)와 폭스바겐(2460대)로 7위와 8위를 차지했다. 이에 더해 제네시스와 포르쉐가 각각 1405대와 915대 등록돼 상위 10위권을 형성했다.

테슬라는 2020년 1만826대 판매돼 국내 전기차 시장 1위를 기록했지만 2021년부터 2023년까지는 3위에 머물렀다. 그러나 11월까지 전체 2위를 유지하면서 12월 실적에 따라 다시 2위로 올라설 수

있게 됐다.

테슬라의 상승세는 국내 전기차 시장 하락세와 맞물려 더욱 두드러진다. 전기차 신규등록 대수는 2022년 12만3908대에서 2023년 11만5822대로 꺾였고 2024년은 누적 11만7160대로 2023년 기록을 넘어섰으나 2022년 등록대수를 따라잡을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다.

테슬라의 상승세 원인으로서는 가격경쟁력이 꼽힌다. 테슬라는 전 세계적으로 가격인하 정책을 펴고 있고 한국 시장에서도 적극적인 가격인하에 나섰다.

높은 가격이 구매자의 진입을 막는 심리적 장벽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테슬라가 눈에 띄는 가격인하 정책을 펼친 것이 판매량 증가에 큰 도움이 됐다는 평가다.

우선 모델Y 후륜 구동 가격이 두 차례 인하됐고 테슬라 모델3 또한 4월 부분 변경 모델을 출시하며 가격을 인하했다.

이에 따라 모델Y가 1만7671대 판매됐고 모델3 또한 1만319대 판매되는 등 테슬라의 상승세를 이끌었다.

양준규 기자 jgyang@skyedaily.com

홍범식 LG U+ 사장 첫 행보는 AI 기술 협력

“스타트업과 일을 가장 잘할 수 있는 회사 만들 것”

LG유플러스는 홍범식 LG유플러스 신임 사장이 공식 첫 행보로 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 프로그램인 ‘슈프트’ 데모데이 행사에 참석했다고 15일 밝혔다.

홍범식 사장은 “LG유플러스는 스타트업과 일을 가장 잘할 수 있는 회사이자 스타트업이 가장 함께 일하고 싶은 회사로 나아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홍범식 사장은 인공지능(AI) 기술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유망한 AI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실질적인 협력을 통해 기술 혁신을 이뤄 고객 감동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슈프트는 LG유플러스가 AI 기술 고도

화를 목표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대학 연구소의 창업팀과 관련 스타트업을 발굴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프로그램에선 총 8개 스타트업이 선발됐다.

참가 기업에게는 익시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및 인프라 등 기술지원사업과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LG유플러스와의 사업 협력·전문 펀드를 통한 자본 투자 검토 등 기회가 제공된다.

LG유플러스 울산 사옥에서 열린 슈프트 데모데이는 프로그램에서 선발된 스타트업에 대한 외부 투자를 유치하고 LG유플러스와의 기술 협력을 본격적으로 논의



홍범식 LG유플러스 사장(가운데)과 슈프트 참여 스타트업 대표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하고자 마련했다. 현장에는 홍범식 사장과 더불어 벤처캐피탈·대학기술·스타트업 소속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슈프트 프로그램에서 최종 선발된 스타트업을 살펴보면 AI 에이전트 부문에선 르몽·옴렛·페어라·토글캠퍼스 등이 선발됐다. 소프트웨어 운영 및 개발 부문에서 스쿼트비즈·테크노매트릭스가 선정됐고 AX 모델 부문에서는 트릴리온랩스가 선정됐고 AX 기반 기술 부문에서는 에이인텔리전스가 선정됐다.

이날 행사에서 최종 합격한 스타트업은 참석한 벤처캐피탈을 대상으로 투자 유치를 위한 기업 설명회 시간을 가졌다. 이와 함께 LG유플러스와 기술적 협력을 전개할 기술의 사업화 검토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LG유플러스는 사업 협력 연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양준규 기자 jgyang@skyedaily.com

유한재단, 암환자 지원금 10억 원 기부

암환자 치료·사회복지 지원

유한재단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암환자 지원을 위해 대한암협회에 10억 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

15일 유한재단에 따르면 이번 기부는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으로 치료가 어려운 암환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치료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고 전했다. 유한재단은 작년에도 암환자 치료비 지원을 위해 5억 원을 기부했다. 지원을 통해 환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또 치료 과정에서 환자들이 겪는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정서적 안정과 회복을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대한암협회는 유한재단 지원금으로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암환자들을



김중수(왼쪽) 유한재단 이사장이 이민혁 대한암협회 회장에게 기부금 10억 원을 전달하고 있다.

유한재단

허승아 기자 heosa@skyedaily.com

“가장 소중한 분께” 건강을 선물하세요

대한민국 NO.1 당큐락

마이ক্র로바이옴 프로바이오틱스

혈당 유산균

(24년 3월 기준)

대행큐~
당큐락!

본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판매원: (주)유한양행 | 연구개발: (주)에이투엔 | 제조원: 코스맥스엔비티(주)
*디에스티원일 (23.01-12) 혈당 건강기능식품 매출액 1등, NS홈쇼핑 (23.01-06) NS 혈당 기능성 건강기능식품 1위

더 알아보기

당큐락 전속모델